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성,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윤 덕 탁 진 국 이 상 희[†]

광운대학교

여성들은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성(sex)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진로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야로 공학계를 선택하였으며, 이들의 특성을 다수의 여성들이 전공으로 선택하는 인문계 여대생들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학계 여대생 101명과 인문계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 척도, 진로결정성 척도, 진로 준비성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인구학적 조사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 여대생의 남성성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성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전공 계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준비성은 인문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전공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여대생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에는 자기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 째, 남성성,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공학계 여대생, 인문계 여대생,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준비, 자기효능감

[†] 교신저자 : 이상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139-7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E-mail : sanglee@ kw.ac.kr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진로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한정신, 1991).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으나, 자기이해나 직업정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옥, 1989). 더욱이 여성의 경우는 자아의 성취와 실현이라는 진로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더 많은 혼돈과 장애를 겪을 뿐만 아니라 발달 및 사회화의 차원에서 남성과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성들은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성(sex)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성(sex)과 직업선택의 전통성의 관계를 연구하여 왔다(Orcutt & Walsh, 1979). Gottfredson(1981)에 의하면 성 유형이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가 성(sex)에 적합한 진로 대안들에서만 직업선택의 범위를 지각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의 성유형과 자신의 생물학적 성특성 및 성역할 정형화 특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적 성에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성격 특성, 행동양식 및 가치에 비추어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혹은 여성적인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Bem, 1975). 성역할은 사회집단이 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에 따라 전형적인 행동유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사고·태도·행동양식을, 남성

은 남성의 역할에 적합한 사고·태도·행동양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전통적 진로선택과 비전통적 진로선택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들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진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학생보다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들은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은 남성성의 존재와 함께 여성성이 부재할 경우 더 강력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하는데(임용자, 1994), 남성성이 비전통적 진로결정에 주는 영향과 여성성이 전통적 진로결정에 주는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Murrell, Frieze, & Frost, 1991),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많이 가졌다고 지각할수록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Baker, 1987)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범위의 직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남성적인 직업의 영역으로만 생각되어졌으나 현재에는 중성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지는 직업들이 증가하고 있다(Betz, Heesacker, & Shuttlesworth, 1990).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영역은 주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로, 법이나 의학 영역은 여성들의 진출로 이제는 어느 정도 여성의 지배 영역을 확보하였으나, 화학, 공학, 그리고 고위 경영직이나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광대한 직업영역에서 여성의 종사 비율이 미약하게 나타난다(Betz, 2005). 특히 수많은 공학, 과학 분야들에서 상

당히 적은 수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몇 특수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등장하였으나, 이 또한 전체 종사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Seymour & Hewitt, 1994).

이처럼 남성 우세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낮은 종사 비율은 여러 연구자들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왔다. 최근에 연구들은 개인적, 외부적 영향들이 비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Chusmir, 1990). 이러한 연구 결과,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기 확신감이 높으며, 경쟁적이며, 독립적이거나 또는 아주 의존적이라고 보고되었다(Baker, 1987; MacCorquodale, 1984). 비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지고 있었으며(McKenna & Ferrero, 1991),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었다(McKenna & Ferrero, 1991).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딸의 교육에 지지적이었으나, 특히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아버지, 남자 친구, 남자 선생님과 같은 남성 인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Almquist & Angrist, 1970). 예로 남성가족 구성원이 엔지니어인 경우 여성이 공학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되었다(Cater & Kirkup, 1990). Mau 등(1995)은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전공을 원하는 여자 고등학생과 가사 관련 전공을 원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비전통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여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더 우수하며, 자기 존중감이 높고, 내적통제 소재를 가지며, 부모의 기대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Mau, Domnick,

& Ellsworth, 1995).

Holland(1985)는 성격-직업 일치성 개념을 여성연구에 적용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유형에 일치하는 직업환경을 갖는다는 개념을 검증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의 성격-직업 일치성 선택은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이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Gottfredson, 1981).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직업선택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나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진보적인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Holland, 1985, Yanico, Hardin, Mclaughlin, 197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Wolfe와 Betz(1981)는 비전통적 직업선택을 하는 여성이 더 자신의 성격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보다 진로성숙 면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유계식과 이재창(1997)에 의하면 남성성 정체감인 주도성, 공격성은 학교적응, 직업계획, 전공의 진로결정 수준과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었고, 여성성 정체감인 이타성과 연약성은 전공의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적 정체감보다는 남성적 정체감이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여성들이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증명하여 왔다. 관련변인으로는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성공적인 성역할 모델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그리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Betz, 2001; Fitzgerald & Harmon, 2001; Flores & O'Brien, 2001; Luzzo & McWhirter, 2001). 또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장벽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Swanson & Tokar, 1991). 진로미결정 수준에서 명확한 성차가 나타나지는 않지만(Rojewski, 1994), 오히려 성에 관련 없이 비전통적인 성 관련 특성이나 태도를 가진 개인이 진로 결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Fassinger, 1995; Hetherington & Orzek, 1989). 국내에서 수도권 이공계 3,4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김정자 등(1998)의 연구에서도 이공계 여대생의 경우 낮은 여학생 비율로 인한 여학생의 소외 및 성차별적 풍토 등이 여학생의 긍정적 교육경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대학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계속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비전통적인 전공에 종사하는 여대생들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정자 외, 1998) 민무숙 등(2002)의 연구에서도 공학계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 및 자신감이 낮고, 기계조작의 애로점이나 학과의 집단적인 분위기나 소수집단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혜정 등(1995)은 공학계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지과정 능력, 지적능력, 사회적 능력의 세 범주 모두에서 교수들이 여학생의 능력이 남학생보다 뒤떨어진다고 응답하였음을 보고하며, 공학교육이 남녀에게 차별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대생들은 아직까지 공학 분야가 남성적인 분야라는 고정관념, 진로에 대한 여성 역할모델을 얻기 어려운 점, 진로에 대한 부족한 정보 상황, 부족한 사회적 지지 등으로 볼 때,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성숙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공학계와 인문계의 여성들의 진로성숙은 한 가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하여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에 근거하여 비교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Hackett와 Betz(1981)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자기효능감 개념을 적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Schunk, 1984)으로서,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는 동기적·인지적 원천 및 행동방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Gist & Mitchell, 1992),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Silver, Mitchell & Gist, 1995)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성(sex)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Gorrell & Shaw, 1988).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비전통적인 진로에서보다 여성 전통적인

영역들에서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여왔다(Matsui, 1994). 전통적인 진로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여 왔고, 성공적인 진로 역할 모델을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비전통적인 진로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Betz와 Fitzgerald(1987)는 심리적 남성성이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비전통적인 진로 목표와 성취를 선택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Mau 등(1995)도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Mau et al., 1995). 또한 과학과 공학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는 자기 효능감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Larry, Gregory & Ronald, 1998).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여성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진로의 전통성 여부에 따라 여성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의 모습이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을 구분하여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확인할 것이다.

또한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Adams & Sherer, 1985; Whitley, 1983). 특히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남성성이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 중에도 남성성을 높게 가진 개인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도 진로의 성 전통성 여부에 따라 연구자들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발달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여성에게 비전통적인 진로인 공학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는 대부분이 해외 논문이며,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민무숙, 이정희, 송현주,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내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진로특성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1.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남성성과 여성성, 자기효능감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진로성숙(결정성, 준비성)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공학계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인문계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공학계 여학생 부모님의 교육수준과 인문계 여학생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공학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모두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대학교의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의 여학생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49명을 제외한 총 20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분포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측정도구

성역할 정체감 척도

김득란(1992)이 Bem(1974)의 방식에 따라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남성성(20문항), 여성성(20문항), 중성성(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진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여 최종적으로 합산한 점수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점수가 된다. 각 성역할 정체성의 최고점수는 남성성 20점, 여성성 20점으로 측

정된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6, 여성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진로성숙 척도

진로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 중 진로준비성 차원과 진로결정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성 차원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의 차원이다. 즉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안정감과 일관성의 태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진로준비성 차원은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명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 수집능력,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성 차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6, 진로결정성 차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은 Sheier, Mercandante, Prentice-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인문계	30(30%)	22(22%)	26(26%)	22(22%)	100(100%)
공학계	29(28.7%)	34(33.7%)	21(20.8%)	17(16.8%)	101(100%)
전체	59(29.4%)	56(27.9%)	47(23.4%)	39(19.4%)	201(100%)

punn, Jacobs 및 Rogers(1982)의 척도를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변인은 자신이 직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탁진국, 199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및 전공조사 척도

부모의 학력 및 전공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부모와 모로 나누어 각각의 학력과 전공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력을 중졸, 고졸, 대졸이상, 기타 등으로 조사한 후,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에 전공분야를 선택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분석

회수된 설문지 201명의 자료를 분석, 처리하였다.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고 전공계열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상관관계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학계 여대생, 인문계 여대생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였고, 전공계열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성,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인문계열	공학계열	전공별(t값)
남성성	10.8(5.2)	12.1(4.4)	-2.02*
여성성	13.3(4.1)	13.0(4.2)	.46
진로결정성	3.0(.84)	2.9(.58)	1.23
진로준비성	4.0(.54)	3.6(.61)	4.77***
자기효능감	3.5(.54)	3.3(.52)	1.83

* $p < .05$ *** $p < .001$

지 않았다. 남성성과 진로준비성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은 공학계 여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진로준비성은 인문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 여성성,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효능감의 상관을 구하여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성과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과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3.1%, 공학계는 2.0%로 나타났으며, 고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46.9%, 공학계 여대생은 37.6%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50.0%, 공학계 여대생은 59.6%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

표 3. 인문계, 공학계 여자 대학생 집단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문계(N=100)					공학계(N=101)				
	1	2	3	4	5	1	2	3	4	5
1. 남성성	1.00					1.00				
2. 여성성	.175	1.00				-.093	1.00			
3. 진로결정성	.315**	.026	1.00			.137	-.094	1.00		
4. 진로준비성	.229*	.072	.109	1.00		.113	.105	-.032	1.00	
5. 자기효능감	.515***	.138	.323**	.256*	1.00	.360***	.164	.018	.507***	1.00

* $p < .05$ ** $p < .001$ *** $p < .001$

과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8.0%, 공학계는 2.0%로 나타났다으며, 고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65.0%, 공학계 여대생은 61.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27.0%, 공학계 여대생은 36.4%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어머니의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전공이 인문, 사회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47.1%, 공학계 여대생은 26.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50.0%, 공학계 여대생은 49.1%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2.1%, 공학계 여대생은 22.8%로 나타났다. χ^2 검증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아버지의 전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4.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 학력 비교

명(%)

구분	학력	인문계	공학계	전체	χ^2
아버지	중졸	3명(3.1%)	2명(2.0%)	5명(2.5%)	$\chi^2=1.883$
	고졸	46명(46.9%)	38명(37.6%)	84명(42.1%)	
	대졸	49명(50.0%)	59명(59.6%)	108명(54.8%)	
	전체	98명(100%)	99명(100%)	197명(100%)	
어머니	중졸	8명(8.0%)	2명(2.0%)	10명(5.0%)	$\chi^2=5.008$
	고졸	65명(65.0%)	61명(61.6%)	126명(33.3%)	
	대졸	27명(27.0%)	36명(36.4%)	63명(31.7%)	
	전체	100명(100%)	99명(100%)	199명(100%)	

표 5. 부모님의 전공에 따른 전공계열의 차이 비교 명(%)

구분	전공	인문계	공학계	전체	χ^2
아버지	인문사회계	23명(47.1%)	16명(26.7%)	39명(37.1%)	$\chi^2=11.16^{**}$
	이공계	24명(50.0%)	28명(49.1%)	52명(49.5%)	
	자연계	1명(2.1%)	13명(22.8%)	14명(13.3%)	
	전체	48명(100%)	57명(100%)	105명(100%)	
어머니	인문사회계	21명(80.8%)	23명(67.6%)	44명(73.3%)	$\chi^2=6.82$
	이공계	4명(15.4%)	2명(5.9%)	6명(10.0%)	
	자연계	1명(3.8%)	9명(26.5%)	10명(16.7%)	
	전체	26명(100%)	34명(100%)	60명(100%)	

** $p < .01$

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여대생은 아버지의 전공이 인문사회 계열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계 여대생은 아버지의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전공이 인문, 사회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80.8%, 공학계 여대생은 67.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15.4%, 공학계 여대생은 5.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전공이 자연계인 경우는 인문계 여대생은 전체에서 3.8%, 공학계 여대생은 26.5%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대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어머니의 전공계열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남성성은 진로결정성을 1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5% 예언하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남성성

표 6.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인문계(N=100)				공학계(N=101)			
		β	t	R^2	F	β	t	R^2	F
남성성	진로결정성	.32	3.28**	.10	10.77**	.14	1.37	.02	1.89
	진로준비성	.23	2.33*	.05	5.44*	.11	1.14	.01	1.29
자기	진로결정성	.32	3.38**	.10	11.45**	.02	0.18	.00	.032
효능감	진로준비성	.26	2.62*	.06	6.86*	.51	5.82***	.25	34.3***

* $p < .05$ ** $p < .001$ *** $p < .001$

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남성성은 진로결정성을 2.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1% 예언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남성성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을 10%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6% 예언하고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을 0.1% 예언하고 있었으며, 진로준비성을 25% 예언하고 있었다. 공학계 여대생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나 진로준비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hierarchical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성의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를 남성성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를 남성성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례를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남성성과 자기효능감만을 회귀식에 포함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전공계열을 단계적으로 회귀식에 포함시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남성성과 진로자기효능감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남성성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 남성성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남성성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만 직접 영

표 7. 남성성,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남성성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종속변인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남성성	.25***	.34***	.16*	.19*	자기효능감	.20**	.37***	.37***	.22*
전공	-.12	-.12	-.34***	-.34***	전공	-.06	-.06	-.27***	-.27***
남성성 x 전공		-.14		-.04	자기효능감 x 전공		-.25*		.21*
R ²	.059	.066	.120	.116	R ²	.037	.064	.229	.247
ΔR ²		.007		-.004	ΔR ²		.027		.018
F	7.24**	5.71**	14.61***	9.78***	F	4.83**	5.54**	30.7***	22.9***

* $p < .05$ ** $p < .0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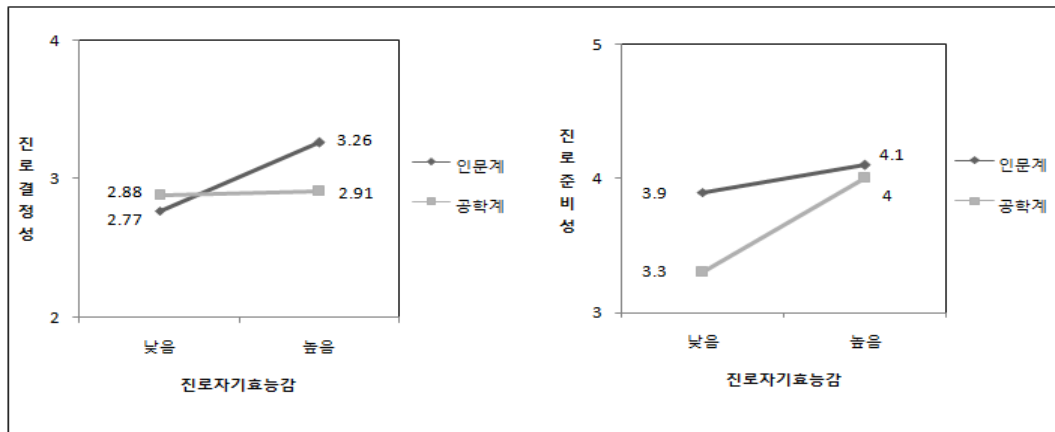


그림 1. 전공계열과 진로효능감 고/저에 따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의 평균

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전공계열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성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남성성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다음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대한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델 2에서는 전공계열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1에 전공계열과 자기효능감의 고/저에 따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의 평균을 제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최근 들어 비전통적인 진로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남성 지배적인 진로영역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성적인 진로 영역으로 여겨지는 직업 영역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 영역은 주로 남성이 지배적이며 여성 종사자가 적거나 참여 비율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직업영역을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Baker, 1987; Chusmir, 1990; MacCorquodale, 1984; Orcutt & Walsh, 1979), 이러한 연구들이 여성의 진로영역 확장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져 왔고, 국내에서는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여성에게는 비전통적인 진로라고 생각되어 지는 공학계열 여대생과 일반적인 진로로 생각되어지는 인문계 여대생을 표집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와 특성들을 비교 확인하여 보았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남성성은 여성의 비전통적인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공학계열 여대생의 남성성이 인문계열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들이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보다 남성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편차에서도 공학계열 여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표준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경우 여성성이 낮다는 연구(Murrell, Fricze, & Frost, 1991)와는 달리, 공학계열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여성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에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학계 여대생들의 남성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학계열로 진학한 이후에 접한 공학적 교육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여대생들의 특성으로 남성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공학계 여대생의 남성성이 높은 것이 공학계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후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들에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공학계 여대생에 대한 특성들을 밝혀왔다. 연구들은 비전통적인 진로의 여대생들은 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들보다 자신의 적성 및 성격과 맞는 진로를 더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이 더 높고,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자기확신적(Mau, W.C., Domnick, M., & Ellsworth, R. A, 1995)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지지를 받는 것이 취약하고, 더 많은 장벽을 경험하며,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반대의 의견들(Betz, 2001; Fitzgerald & Harmon, 2001; Flores & O'Brien, 2001; Luzzo & McWhirter, 2001)도 있었다. 이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과 인문계 여대생의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을 비교 확인하였다. 진로성숙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진로결정성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성은 인문계 여대생이 공학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공학계 여대생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결정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로준비성에서 공학계가 인문계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학계 여대생들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높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나 진로성숙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공계 여대생들이 낮은 여학생 비율로 인해 소외 및 성차별적 풍토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경

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학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계속 살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고,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 및 자신감이 낮으며, 소수집단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정자 외, 1998).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이공계 여대생들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 공학계 여대생들이 진로에서 인문계 여대생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의 학력수준과 전공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수준이 높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Kenna & Ferrero, 1991). 또한 비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아버지, 남자 친구, 남자 선생님과 같은 남성 인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Almquist & Angrist, 197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수준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전공이 다른지를 비교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학력수준은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에 인문계 여대생보다 부모님의 대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공계열에 따른 부모님의 전공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아버지의 전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여대생의 경우 아버지가 인문사회 전공인 경우가 공학계보다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공

학계 여대생의 경우 아버지가 이공계 전공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자연계 전공인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의 전공과 직업이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확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자연계가 이공계와 인접한 분야라고 볼 때 아버지의 전공분야가 딸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성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전공계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모두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남성성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으며, 자기효능감도 진로준비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인문계 여대생의 경우는 남성성이 높으면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에는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래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공학계 여대생은 인문계 여대생보다 높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비전통적인 진로의 선택에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aker, 1987; Murrell, Frieze, & Frost, 1991). 그러나 공학계 전공을 선택한 이후의 진로성숙에는 남성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성이 여대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전공계

열에 따라 진로발달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도 전공계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학계 여대생 집단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 진로준비성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남성성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도 전공계열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학계 여대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인문계 여대생과는 다른 교육 및 환경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다섯 째, 전공계열에 따라 남성성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계열을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남성성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전공계열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성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남성성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전공계열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전공계열은 진로준비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기효능감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항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성에서는 인문계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고/저 수준에 따른 차이가 공학계 여대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성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고/저 수준에 따른 차이가 인문계 여대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계열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문계 여대생과 공학계 여대생의 진로지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예로, 공학계 여대생의 경우 진로준비성이 인문계 여대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인문계 여대생과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공학계 여대생 집단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주는 것은 지각하는 진로준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근교의 제한된 지역에서 샘플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상과 지역의 대학생을 표집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비전통적인 진로영역으로 공학계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종사가 부진한 남성적인 지배영역으로는 공학계열 외에도 화학, 물리 등의 순수 과학분야, 그리고 고위 경영직

이나 정치 영역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공학계열 이외의 다른 진로영역으로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 여대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성역할 정체성,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에서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학계 여대생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고려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성숙이 인문계 여대생과 비교하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학계 여대생은 인문계 여대생보다 진로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대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나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대생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등이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자 외 (1998). 여성과학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이공계 여대생의 교육경험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과학재단.

모혜정, 이재경 외 (1995). 여성공학 교육 및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 관리소.

민무숙, 이정희, 송현주 (2002). 공학분야 여성 고급 인적자원 개발 지원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원.

유계식, 이재창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용자 (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 57-79.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한정신(1991). 한국대학생 문제진단검사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7, 1-53.

Adams, C. H., & Sherer, M. (1985). Sex role orienta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mplications for the masculinity model. *Sex Roles*, 12, 121-128.

Almquist, E. M., & Angrist, S.(1970). Career salience atypicality of occupational choic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42-249.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tz, N. E. (2005).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for women. Routledge.

Betz, N. E., Heesacker, R. S., & Shuttlesworth, S.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occupational plans in college

-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etz, N. E. & Fitzgerald, L. F. (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Academic Press, San Diego.
- Carter, R., Kirkup, G. (1990). *Women in engineering*. London: MacMillian Education Ltd. Cockburn..
- Chusmir, L. H. (1983). Characteristics and predictive dimensions of women who make nontraditional vocational choic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 43-47.
- Chusmir, L. H. (1990). Men who make nontraditional career choi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1-16.
- Fassinger, R. E. (1996). Notes from the Margins: Integrating Lesbian Experience into the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2), 160-175.
- Fitzgerald, J. F., & Harmon, I. W. (2001). Women's career development: A postmodern update. In F. T. I. Leong & A. Barak(Eds).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p.207-230), Mahwah, NJ; Erlbaum.
- Gist, M. E., & Mite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183-211
- Gottfredson, G. D.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ckett, G., & Betz, N. E. (1981). Self efficacy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etherington, C., & Orzek, A. (1989). Career Counseling and Life Planning with Lesbian Wo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1), 52-57.
- Holland. J. L. (1985). *College Majors Finder*,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 Larry, L L., Gregory, T. M., & Ronald, L. O. (1998).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9(3), 239-276.
- Luzzo, D. A., & McWhirter, E. H. (2001). Sex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and Career-Related Barriers and Levels of Coping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9(1), 61-67.
- Matsui, T. (1994). Mechanisms underlying sex differences in Career Self-Efficacy Expect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2), 177-184.
- Mau, W. C., Dominick, M., & Ellsworth, R. A. (1995). Characteristics of female students who aspire to science and engineering or homemaking occupa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4). 323-337.
- McKenna, A. E. & Ferrero, G. W. (1991). Ninth-Grade Students' Attitudes Toward Nontraditional Occupa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168-181.
- Murrell, A. J., Frieze, I. H., & Frost, J. L. (1991). Aspiring to career in male- and female-dominated professions: a study of black and white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103-126.
- Orcutt, M. A., & Walsh, W. B. (1979). Traditionality and congruence of career aspiration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 Vocational Behavior*, 14, 1-11.
- Rojewski, J. W. (1994). Career indecision types for rural adolescents from disadvantaged and nondisadvantaged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356-363.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y*, 19, 48-58
- Seymour, E., & Hewitt, E. (1997). Talking About Leaving: Factors Contributing to High Attrition Rates Among Science, Mathematics,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Majors. Boulder, CO: Bureau of Sociological Research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 Dunn S, Jacobs, B,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2(3), 286-299.
- Whitley. B. E. (1983). Sex-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 Wolfe, L. K., & Betz, N. E. (1981). Traditionality of choice and sex-role identification as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of occupational choice in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43-55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Yanico, B. J., & Hardin, S. I., & McLaughlin, K. B. (1978). Androgyny and traditional versus nontraditional major choice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61-269.
- 1 차원고접수 : 2009. 9. 4.
심사통과접수 : 2009. 12. 5.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7.

A Study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by sex role identity,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Duk Yoon

Jinkuk Tak

Sanghee Lee

Kwangwoon University

Because female students are affected by sex greatly, more studies for non-traditional career choice women are needed. Most people considered engineering career as nontraditional career choice for women, whereas humanities as traditional career choice for wome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those in college of humanities. 101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100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human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rvey included sex 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self efficacy, and some demographic items. The results showed as follow. First, engineering students had higher masculinity than humanities student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Third, there were no differences on parent's educational levels whereas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of father's majors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engineering students and humanities students with the effects of masculinity and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fifth,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majors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humanities students, self efficacy exerted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 while in engineering students, self efficacy had strong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sex 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self efficacy